

예배 및 모임안내

2019-24호 2019년 06월 16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1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23	06. 30	07. 07
대 표 기 도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임현석 형제
헌 금 위 원	황희순 집사	문정현 집사	문정현 집사
안 내 위 원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민10~29장)
2. 야외예배 - 23일(주일) 낮 12시 Werdersee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오후 2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자동차 이용 주소 - Kuhhirtenweg 7. 28201 Bremen
대중교통 - 정류장 : Wilhelm-Kaisen-Brücke 하차(4,6,8 번 전차) 오전11시40분까지
3. 담임목사 동정 - 교단 목회자 모임. 6월 17일~20(키예브, 우크라이나)
4. 나눔의 시간 - 유미영, 김효종 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기도 모임과 각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2.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 - 입학, 졸업,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 - 김복자 권사, 이 현 형제의 치유를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1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52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91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영희 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5 : 8- 11(신 p96) 김영희 권사
(Lukas 5:8-11)
- *찬 양 Lobelied 한민 성가대
- 설 교 Predigt **제자를 통한 행복 누리기**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93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박재기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남을 위한 간구

“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14:13)”

Martin Luther의 한 친구가 위독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루터에 고별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루터는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회복될 것을 명령하네. 교회 개혁 사업에 자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네. 하나님은 내게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결코 전하지 않으실 것이고, 자네가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축복하실 것이네.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네. 이것이 나의 뜻이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네.” 너무 허약해서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친구는 다시 힘을 얻었고, Martin Luther 보다 두 달이나 더 살았습니다.

기도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열심이나 더 큰 믿음만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들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간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면, 허락하지 마소서. 그리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소서!

매일 목상하는 하나님의 약속 365가지